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4호

발행일 : 2017. 6 . 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아이들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 넘치는
하루였 습니 다.
감사합 니 다.

<이달의 간증>

-송미숙 권찰-

14호 라이프지의 간증 주인공이 되면서 어떻게 첫 인사를 드려야 할지...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지금부터 적는 글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글을 받아 내려가는 글이라 믿는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체험의 고백이 되게 하심이 감사하기만 하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 자녀가 있다.

그 중 하은이와 동유를 통하여 다시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신일이 있다.

어느 날 하은이의 평발을 발견하게 되었다. 늘 봐왔던 아이의 발이었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다. 발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 유연성 평발이라는 진단과 그로 인하여 소아 무지외반증이 생겼고 발아치가 내려앉아 통증과 함께 종아리도 휘었으며 걸음걸이와 자세까지 불균형인 것을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장 기도로 준비하고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희망 없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 교정 깔창을 하겠지만 너무 늦어서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말에 빨리 발전을 못해준 부모모로써 무너지는 가슴만 쳐 널빤이었다. 목사님께서는 의학적 판단은 참고삼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며 함께 가자고 말씀 해 주셨다. 나는 더 주님께 의지했으며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다른 대학병원의 전문인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라 믿고 기도하며 그 병원에 가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달 뒤로 예약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막내 동유의 발을 또 보여주셨다. 동유 발 모양도 하은이와 비슷하였다. 동유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은이보다 더 뒤로 예약이 잡혔다. 이런 사정을 들으신 전도사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며 나와 가정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이라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다. 이제 진료까지 한달 보름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새벽단을 쌓기로 걱정했다.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일주일에 두번 정도의 새벽 기도 시간을 주님께 매달렸고 중보 기도팀에 더 열심히 참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은이가 병원에 가는 날에는 새벽기도 후 내려가는데 근심보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나중에 생각 난 것인데,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 였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지만 그 새벽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부분만 반복해서 불릴 뿐 앞뒤 가사는 전혀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었다. 마침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은혜롭게도 오후 진료라 오전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더 강력히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한 달 가까이 기도한 제목대로 좋은 소식을 듣게 해달라는 말씀을 목사님도 기도로 해주셨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희망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교정깎창을 본떠서 신고 회복을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또한 나의 기도는 한시가 급하여 일상천리로 일이 진행되길 기도했었다. 이전 방문했던 병원은 발본을 뜨기 위해서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제작 선생님이 항시 대기 중이라 따로 예약없이 바로 진행 되었으며 가격 또한 한 켄레에 30만원 하는 것을 두 켄레 36만원에 저렴하게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동유를 위하여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

동유를 위한 기도 제목은 내 눈으로 보아도 이미 심한 평발 모양이었지만 불편한 깔창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은이를 보니 적응하는데도 굳은살이 잡히고 깔창이 높아서 잘 넘어지며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동유도 교정을 해야 할 심한 평발이지만 아직 어리니 운동효과를 기대해 보자며 6개월 후 많은 운동과 스트레칭 후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아~~할렐루야~~

동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사실 고난주간이라 한끼 금식이었다. 나는 목사님의 수요일 예배 말씀 후 감동이 왔다. 그래서 날씨가 겹치었으니 더 큰 마음을 먹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부활주일 후 월요일 진료까지 3시 금식을 일주일동안 하기로 하였다. 금식 첫날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 다 내려놓고 힘내서 집안일을 하는데 이전에 없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이것이 내가 아르지 않은 세밀한 것까지 이루실 주님의 응답일 것이란 확신에 배고픔보다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였고 빨리 병원에 가보고 싶어졌었다. 그 후 구역 식구들과 중보기도 팀 또한 목사님의 지원기도로 나는 금식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며 더 기도에 열정을 쏟아 준비할 수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아이가 심한 평발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도 기도응답인가! 간증인가! 하겠지만~~ 나는 아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은이가 교정깎창을 한지 두 달이 지난지금은 발 안쪽의 부주상골이라는 통증을 유발하는 뼈가 있는데 성장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 함부로 수술은 못하지만 통증이 지속 될 경우 아이가 좀 크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두 달 만에 그 통증이 사라졌다. 나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 할 것이고, 9월에 있을 두 아이의 검사에 희망을 걸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이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빨리 9월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싶다. 나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분명 또 체험할 것이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믿는 자의 편이심을 믿는다.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 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1. 어린시절 집사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대학원을 다니시는데 장학금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창시절 그때도 일등 하셨나요?^^

어릴 적 친구들이 제 대학교 성적보면 깜놀해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중상위권 정도..

ㅎㅎ

그냥 선생님이 간절히 되고 싶었던 여학생.

국어 선생님을 너무나무 좋아해서 국어 만큼은 시험보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답을 맞춰볼 정도였구요. 고등학교는 원치 않던 상업계 진학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놀았어요. 하고 싶었던 장래희망이 있었는데 그 꿈이 껴였다 생각하니 공부도 뭐고 싫더라구요. 하지만 대학교 와서는 올 A+도 맞고 정말 꿈같은 학부시절이었어요. 입학금만 내고 장학금으로 졸업했으니까요.. (자랑질?^^)



2. 집사님은 먹어도 살도 안찌는 백만불짜리 육체를 지니셨는데요.

집사님의 가장 자신 있는 육체 부위와 이유를 써주세요.

동반자의 답 : 정화는 기본 몸매가 예쁘면서도 그 중에 제가 제일 축복받은 신체 부위는 죽을때까지 꺼지지 않는,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인 엉뚱(엉덩이 통통, 예쁘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지 보더니 답을 자기가 꼭 쓰겠다고 해서. 저는요, 기력지? 긴 손가락, 긴 다리~ 부모님께 감사하죠. 이러한 탁월한 유전자를 주셔서..)

3. 5월 대선에서 사전선거로 국민의 권리를 남편분과 함께 당당히 행사하고 오셨는데요. '문대통령께 바란다' 를 적어주세요.

동반자의 답: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보통사람(인간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짐승 아니고요)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저 또한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처럼 낮은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말을 기울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대통령. 예수님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끝난지 열흘이 되어 가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흐뭇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네요.. 지금 첫 그 마음 변치 않고 지속성이 있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야겠죠?

4. 45살이라는 나이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사님의 학업에 대한, 일에 대한, 자기 발전에 대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설마 유학도 가실건지요?

무심코 내딛은 발걸음이 어찌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저의 의지가 아닌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으셨음을 순간순간 느끼곤 한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한 공부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석사도전까지 했는데 요즘은 수업 갈 때 내가 괜한 짓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과제에 대한 부담도 있고 통게 공부할 때는 정말이지 넘 어려워서 수업 내내 멍하니 있을 때도 있거든요.ㅎㅎ)

한때는 박사까지도 하고 유학까지는 아니어도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석사까지만 마치고 공부는 그만 하려해요. 그래도 직장에서의 비전과 강의(전임 교수까지는 아니어도)에 대한 열정은 아직 남아 있으니 이 걸음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5. **집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교보생명 전임 지점장님 인사드리러 안성지점에 들렀다가.... 그곳 소장님의 소개로 만났어요..서로 결혼생각 없다, 그냥 편하게 가끔 밥 한끼 같이 먹고, 영화나 보자 해서 시작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듯 합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ㅎㅎ 연애는요~ 음~ 보통 연인들처럼 개나리 피면 봄나들이 가고, 벚꽃이 피면 벚꽃 길 걷고, 초록 빛 나무가 좋을 때면 그 길을 같이 걷고, 하늘이 좋은 날은 창문 열고 드라이브 가고... 석양이 보고픈 날은 바다를 찾고, 비오는 날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마시고, 개봉 영화 찾아서 영화보고... 대학로 가서 연극보고, 길거리 떡볶이 먹고, 도망먹고... 평범하죠? 운전 할때나 어딜 가도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20대 연애하듯 소소하게.... 늦은 밤까지 매일 두세시간씩 통화하고(어느 날은 새벽까지 통화하다 잠든 날도 있어요..) 넘 님살인가요?

6. **새로운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남편분, 그러니까 시댁의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 들어왔다고 당신 아들한테 늘 잘해라 잘해라 말씀하시는 며느리 사랑 지극하신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 화통하신 아주버님네 가족, 정말 성격 좋고 배려심 많으신 누나네 가족, 모이면 왁자지껄 시끌벅적 하지만 형제를 서로 아껴주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들은 엄지 척! 인 가족입니다.

7. **신랑 사랑 해주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점이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집사님의 심장에 콕 박히는 어떤 멘트라도 날려 주신건지요? 아님 감동의 선물이라도 받으셨는지요.**

무엇을 하든 추진력은 정말 짱인 듯 싶어요. 직장에서도 동기들 중에 승진을 빨리 한 것도 그렇고요. 집중력도 좋아서 뭔가 공부해야 할 것이 있으면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책만 볼 때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 가끔 주위도 돌아보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한답니다.)

콕 박히는 멘트나 선물은 없었구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장미꽃 한송이?^^ 두 번째 만난 다음날 눈이 정말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안성에서 버스로 평택 가서 다시 버스 갈아타고 세시간 넘게 걸려서 당진에 왔더라구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어찌겠어요. 저녁 먹이고 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하고 찜질방에서 재우고 다음날 가는 것도 못보고 저는 출근 했지요. 지금도 두고두고 찜질방에서 혼자 재웠다고 원망 아닌 원망 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버스표도 예매해 뒀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냥 얼굴 봤으니 바쁘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올라가려고 했었대요. 그 뒤에 미안해서 안성으로 제가 올라가고, 혼자 운전하고 내려가게 못하겠다고 같이 내려왔다가 버스타고 혼자 올라가고.. 그러한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감동이 되었나봐요.

8. 집사님께서서는 요리를 참 잘 하시는데요, 남편분은 집사님의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 시는지요? 그리고 그 음식을 드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랑은 제가 하는 모든 음식을 정말이지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떤 음식 을 특정 하는게 아니라 시원하고 칼칼하고 담백한 음식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무슨 음식 이든지... 단 하나,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잘 먹는다는게....ㅠㅠ

작은애가 한 얘기 중에 엄마가 없으면 분식집인데 엄마가 음식을 해주면 레스토랑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이 켈 기억이 남네요...

9. 결혼을 통하여 아들 둘을 더 얻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집사님께서 슈퍼우먼이 되시지 않으시면 안되는 환경입니다. 집사님께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도 그 덕분에 힘이 나고 즐거워 하듯 말이에요. 조금은 힘도 들지만 살아가լ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완성된 삶. 완벽한 거 말이에요. 그것을 유지 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간의 진실되고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이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힘 이기 때문일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행복한 삶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10. 집사님과 남편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성격, 생각, 취향 등등에서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것은 우선 삶의 목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방식과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나 취향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지가 같으니까 경로는 서로 조금 다를지라도 곧 하나의 일치점을 찾아 만나게 되더라고요. 부 부가 함께 노력하고 이뤄야할 삶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스한 느낌들 을 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요.

11. 엄마의 결혼을 아들 성이에게 말할 때 조금은 망설인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때에 엄마로서 집사님의 마음과, 성이의 대답은 어땠었는지 조심스레 여쭙보고 싶네요.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귀국하기 전 필리핀 생활 정리하러 갔 을 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어요. 괜찮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군대가고 하면 엄마 외롭 지 않겠냐면서요. 이제 엄마가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계속 일만하지 않았냐고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더 일 이 많아진 듯 하죠?ㅎ 경찰이라니까 썩 웃더니 “이제 나쁜 짓 하면 안되겠네”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끼리도 형님, 아우하며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저 감사할 뿐이랍 니다.

12. 아들 성이가 필리핀에서 유학하던 시절, 방학때 들어왔다 나갈때면 늘 눈물로 성이를 보내곤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십여년 동안 아들을 양육해온 엄마로서 잘했다 생각되는 일, 그리고 반대로 잘못했다 여겨지는 일을 적어주세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늘 하나의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가장 산 교육이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미안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더 많이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좀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픈 일을 겪게 한 것은 제 잘못은 아니지만 늘 가슴에 아픔으로 남네요..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식은 가슴에 늘 짝사랑이고 가슴앓이인 것을 요즘 더더욱 절감합니다.

13. 늘 유쾌한 모습의 성이지만 엄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된 성이는 집사님께 어떤 아들인가요?

요즘은 전화하면 “네,,어머니.. ”이렇게 전화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곧 개구쟁이 정성으로 돌변하지만,,ㅎ

저한테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걱정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 마음은 장가가고 시간 지나도 똑 같다고 하네요... 아직 제 전화에 “내 보물 1호” 라고 저장 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 옆에 있는 남편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은 성이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이는 이런 엄마가 부담스러우려나요? 가끔은 ‘어느 정도 내려놓았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14. 남편분은 공무원이시고, 부인되시는 집사님은 교보생명 소장님이신데요, 가정의 월수입이 궁금합니다. 노코멘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십일조 액수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그렇게 될때 집사님은 그 수입으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가정수입은 저희들 기준으로 빚지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앵겔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셋이 먹는 것을 보면 알바라도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거든요...ㅎ 십일조는 제가 일에 전념해서 할 때는 혼자서 십일조 일천만원을 놓고 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놓고 일하고 있는 상태라 둘이 합쳐서 그 이상(?), 온전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기본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서로 오기 전 여성 청소년계에 있으면서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선한 일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더라구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둘이 갖고 있는 꿈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15. 성가대 지휘하시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정말 아름다운가요?^^

제가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악기를 배운 적도 없고 음악에 관한 것은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곡을 듣다보면 제 나름대로 곡을 읽게 되고 어떻게 찬양 드려야 은혜롭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연습 할 때는 안 나오던 지휘모습이 예배 찬양 때 나온다고 김순미 권사님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지휘하는 모습 보다가 박자 놓칠 때도 있다고...(권사님! 그래도 박자 놓치심 아니되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크게 쓰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6. 집사님께 찬양대란 무엇일까요?

작은교회요.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여 (신앙의 기간, 깊이 등등) 서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듯 찬양대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대원도 정말 제각각의 모습들이거든요. 성량도, 음색도, 음악성도....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의 호흡과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은 작은 성전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주일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때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와 말씀이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주님과 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7. 매주 찬양대 곡을 고르시느라 고생 아닌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의 곡 중에서 집사님께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던 곡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매주 누가 곡을 정해줬음 좋겠다란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어요. 곡을 고르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힘도 들지만 힘이 되는 것이 곡을 고르면서 은혜와 감동이 올 때가 많아요. 은혜가 되는 것은 특별한 곡이라기보다 그날 찬양이 목사님 설교 말씀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찬양대원들도 그런 날에는 예배 마치고 나서도 기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곡 고르라 하면, 4월 마지막 주 곡이었는데, 눈물 흘리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신앙고백이 되었던 “회복”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이 영성의 회복이었는데 그 찬양이 딱 와 닿았었답니다.

18. 피해갈 수 없는 영적인 질문 드릴게요^^ 힘들고 어렵던 시간에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했던 그때가 궁금합니다.

2011년에 일을 겪으면서 많이 절망스러웠고 이후 법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되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라 공부하라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졌겠지만, 연출된 모습이 많았더라고요. 난 괜찮아,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하면서요. 혼자 늦은 밤 집에 들어오면 공허하고 오늘 난 뭘 하고 보낸 건가 싶고... 물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도움도 많이 받고 위로도 해주고 정말 많이 사랑 받았는데 결국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두 번째 기일이었을 거예요. 성이도 필리핀 가있고 혼자 추도예배를 드리는데 묵상기도로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주위를 따스한 손길로 휘감는 느낌이 들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화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법원에서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제 모습도 솔직함으로 더 담대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도 저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이셨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19.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겨서 평평 울 것 같아요. 울음 그치면?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저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20. 5월의 실천표어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된 저의 가족들에게 먼저 신앙의 영향력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모습을 통하여, 언행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자연스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가정에 스며들기를 기도하구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제 발걸음이 옮기워지는 곳곳에 작으나마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길,

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생각하면 그냥 살포시 웃음이 지어진다는 문자를 보내주는 분도 계신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선한 영향력이 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몸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이요
범사에 그리스도를 머리삼음은 부부간의 영광이라

우리 구역 최고!!

-사랑구역-



새내기 구역장! 새파란 구역장! 새로운 구역장!

2017년에 처음 구역장을 맡은 사랑구역장 **이영선** 인사 올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구역장의 사명을 주시고 한주 한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구역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뽕뽕한 구역이지요. 첫 구역장 사역이라 의욕 상실하지 않도록 힘을 팍팍!!! 불어 넣어주신 아주 훌륭한 구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역식구들 한분 한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구역의 최고 어르신 **오송녀 집사님**~~ 제가 중식 때문에 미리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릎이 아프신 중에도 참으시고 한 달 동안 즐거우게 푹푹뚫뚫 숨쉴 좋은 음식으로 성도님들의 점심시간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신나게 기쁘게 한 달을 중식으로 사역할 수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구역의 어르신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멋진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론 애교도 많으시고 성경지식도 풍성하신 **이경애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노'가 없으신 긍정의 집사님이십니다. 어떤 말에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주시며 항상 구역장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협력 짱!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구역에배드릴 때에도 든든하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유머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유머 하면 바로 **김정임 집사님**이지요!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편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이지요~ 그래서 너무 이무로운 집사님이죠. 말도 존칭 없이 편하게만 지내던 사이였는데 제가 구역장이 되자마자 구역장님!! 이라고 극존칭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을텐데 늘 일관되게 높여 주셔서 저를 항상 사역자로의 마음가짐으로 일깨워 주시는 고마우신 집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에 나이로도 막내 신앙으로도 막내~ 그러나 열정만큼은 최고인 **전수현 권찰님**이 계십니다. 구역장이 부족하여 신앙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지 못함에도 늘 한결같이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라며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결코 신앙은 어리지 않은 우리 권찰님은 교회의 새벽기도 용사로도 이름을 올린, 때론 구역장을 부끄럽게 하는 보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도 손색없지만 또 협력을 너무 잘 합니다. 새벽 성경 통독 대회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모일 때 확실히 모여줍니다. 저는 우리 사랑구역이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올 한해 구역식구 한 심령 한 심령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교회의 멋진 일꾼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하나..
하나씩 채워나가요..
사랑만 하며 살아도..
모자란...
시간들이 많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12

<6월 특집>

사랑하는 당진순복음 성도님들께!

필승! 밀알청년회 김연훈입니다. 6월이 호국의 달이라 군인들의 이야기를 올리고 싶다는 문서위원회의 요청에 성도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흔쾌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재작년 10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후 마치 전쟁에 끌려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럽게 눈물, 콧물 흘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당진순복음 교회를 떠나던 날이 어제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것도 잠시 시간이 훌쩍 지나 벌써 (편지 작성일 기준) 582일의 군생활을 하고 56일의 군생활을 남겨두었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군생활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주변 선,후임 그리고 동기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혹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그때는 못나가는 시기에 휴가를 올려두고 휴가가 정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군 안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도 기도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믿지 않던 그들에게도 주님의 역사가 보여 지고 일어나니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인원들은 제게 와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었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3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하였고 우스갯소리로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전우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기도했고 기도제목을 올렸을 때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해 더욱 '기도'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양육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김성광 청년, 김병관 청년, 김홍빈 청년, 김민성 청년과 저를 위해 더욱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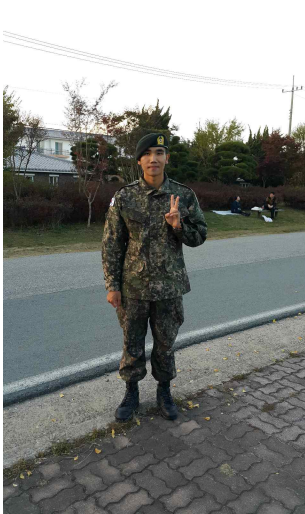
♥ 필승!

웃으십시오!!

어느덧 만개한 봄꽃들이 물러가고 신록이 짙어지는 가로수와 내리쬐는 따사로운 햇살이 이른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뜨거워져가는 계절의 길목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늠름한 청년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이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듬직한 청년들도 그들이 있을 자리에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김연훈, 김병관 청년과 얼마전 전역한 조경환청년~ 또 해병대에 지원해 훈련소에서 땀 흘리고 있을 김민성 청년이 대한민국에 진짜 사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함께 기도와 신앙으로 키운 자녀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나라의 안녕과 평안의 기둥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제대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없어서는 안될 귀한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의 국군 아저씨들에게 힘찬 응원과 축복의 기도로 더욱 지원하여 모두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짝짝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어린이 주일





피코리 소녀 서익...



얼음공주 소은...



에너지 넘치는 승민...



불임불임 아영~~아은...



딸~~생긴 준의...



백마탄 왕자 진욱...



암젠뒤에 파워가있다. 은아



승부욕 땡! 윤의...



영경이야기의 왕 산재...



아나남께 영광을. 영광...



누가뭐래도 난 나야! 아영...



1+1 = 귀요미 재민...



동작만 영아. 순관...



열심히 찍혀 단아...



은애로다의 지른 미경...



작은고추가 맵다 영한...



정순소녀 에은...



순복음의 딸 다의...



우~~아예요. 재아...



사랑합니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마가복음 10장 51~52절)
(숨은그림 : 당근, 양, 창 넓은 모자, 양말, 바나나)

* 심는 대로 거두리라! - essay.135 -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8절)

야외예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함



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모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분석

1. **시몬 베드로**: '시몬' 은 '듣는 자', 또는 '복종' 을 뜻하며, '베드로' 는 바위라는 뜻이다.

그는 가버나움 사람의 후예로서 벳세다의 어부였으며 요나의 아들로써 안드레와 형제였다. 그는 최초로 부름 받은 중요한 제자들 중의 하나이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천국을 연 사도였다. 그는 사도로서, 광범위하게 여행하였고 신약성서에 포함된 두 서신을 썼고 끝내는 순교하였다.

2. **안드레**: '안드레'란 '남자답다' 는 뜻을 가진다. 베드로의 형제로써 벳세다의 어부였고 요한의 제자인 한 사람이었다. 그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되며 다른 형제의 개종에 공을 세웠다. 그의 사도로서의 공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가야 지방 파트레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일설에 그는 감히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여 X형 십자가를 선택했다고도 전한다.)

3. **야고보**: '대신 들어왔다' 는 뜻의 이름이며 부친은 세베대, 형제로는 요한이 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으나 최초로 부름 받은 예수님의 제자 중의 하나가 되었고 총애를 받았다.

헤롯에 의해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했다(행 12: 1).

4. **요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야곱의 형제로써 갈릴리의 어부였다.

비교적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충실히 따랐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사도로서의 행적은 풍부하다. 제 4복음서와 세 서신을 기록했으며 계시록도 기록하였다. 그는 일찍이 에베소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측된다.

5. **빌립**: '빌립' 이라는 말은 '투쟁적' 이라는 뜻이며, 그도 역시 벳세다의 어부였다. 초기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다니엘에게 그에 관해 얘기했다 (요1: 45). 그의 사도로서의 행적이나 죽음에 관해서는 확실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6. **바돌로매**: '탈마이의 아들 (Son of Talmai)' 이라는 뜻이며 여러 가지 점에서 나다니엘과 동일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요 1: 45). 그는 아라비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한 것으로 추측되나 그의 사도로서의 행적과 죽음에 관한 확실한 것은 알려진 바 없다.

7. **도마**: '도마' 라는 말은 '쌍둥이', 또는 '소리' 를 뜻하며, 그는 '디두모스 (Didymus)' 라고도 불렸다. 안디옥 출생으로서 그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서만 얻을 수 있어서 그의 사도로서의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페르시아에서 전도하고 에뎃사에서 죽은 것으로 믿어진다.

8. **마태**: '여호와와 선물' 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그는 또한 '레위' 라고도 불렸으며 예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가버나움의 세리였다. 그는 제 1복음의 기록자이며 그의 다른 행적에 관한 전설은 많으나 확실치 않다.

9.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주님의 형제'라고도 불리며,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운 뒤에 그 운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야고보서의 저자이다. 일설에,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 뜨려진 후에 곤봉으로 맞고 순교했다고 한다.

10. **유다** (야고보의 아들): 다대오(막 3:18)와 동일인이며 유다서의 저자로 추측된다. 사도적 행적의 기록은 아직 없다.

11. **시몬** (가나안 사람): '셀롯' 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그가 "Zealots" 당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세의 의식을 맹신적으로 지킨 사람들이다. 사도로서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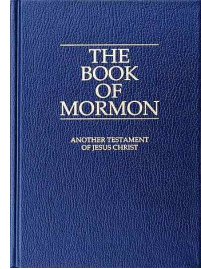
12. **유다** (가룟): "유다" 는 '찬양하다' 라는 뜻의 이름이다. "가룟" 은 유대지방의 지명인 듯하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였으며 회계를 맡았으며, 전도하거나 다른 제자들 처럼 이적을 행한 것 같지는 않다. 주님에 대한 그의 반역은 영원히 그의 이름을 유명케 했다

<이단 특집>

몰몬교

1. 성경은 유일한 권위의 근원이 아님
2. 성경은 다른 몰몬교의 경전에 비추어 읽고 해석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3. 예수는 많은 신중의 하나임
4. 예수는 신적 존재지만 독생자는 아님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줄여서 후기성도 교회는 초대 교회의 신권 조직과 교리와 운영 원리를 그대로 복원하였다고 주장하며, 회복된 기독교를 표방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성립된 기독교 교파이다. 1830년 뉴욕 주에서 조셉 스미스 주니어를 포함하여 다른 종교에 소속된 적이 없는 6명의 설립 등 기인으로 공식 설립되었다. 종교학에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파생된 분파가 아니므로 별도의 교파로 분류되어 있다. 성경과 더불어 몰몬경과 같은 경전을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모르몬교라고도 알려져 있으나 이 명칭은 교회 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 명칭 사용을 요청하고 있다. 1955년 처음 대한민국에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Latter-day Saints'를 한국어로 직역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불렸으나 2005년 7월 현재의 한국어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후기성도 교회 교도는 1921년 일본을 거쳐 부산에서 만주까지 여행했던 데이비드 오먼 맥케이(David Oman McKay)였다.

당시 12사도 시절이었던 그는 뒤에 교회의 제9대 회장을 지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 중에 덴마크 젠슨(Denmark Jensen) 대령이 있었는데, 그는 이 때 처음으로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알렸다. 좀 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친 사람은 1945년 10월 26일 미군으로 인천항에 도착한 루스 로빈슨(Ruth Robinson) 하사였다. 그는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선교활동을 벌였다. 이후 6·25전쟁 때 국제연합(UN)군으로 참전한 미군 가운데 많은 후기성도 교회 교도들이 한국인들을 전도했다.

그 후 문교부차관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호직이 미국의 코넬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침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교인이 되어 1955년 귀국했다. 1956년 4월에는 정식 선교사로 돈 파웰(Don Powell) 장로와 리차드 리 데튼(Richard Lee Detton) 장로가 내한했고, 이어서 6명의 선교사가 8월에 내한했다. 이해 6월에 서울 중구 정동에 한국지방부 서울지부가 조직되었다. 1957년 문화공보부장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11일 법원에 정식등록을 마쳤으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전도사업과 교회활동이 시작되었다. 1962년 한국에 선교부가 창설되었으며, 1967년 <모르몬경>이 한국어로 번역·출판되었다. 1973년 한국에 아시아 대륙에서는 첫 번째로 서울 교구가 조직되었다. 1985년 12월 14일에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서울 성전이 세워졌다.

2005년에는 영문으로 된 교회 이름인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한국어 교회 이름을 기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로 변경했다. 흔히 ‘말일’이라는 어감이 주는 종말론적인 느낌을 없애고 ‘latter day’의 원 뜻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개칭이었다. 같은 해 <모르몬 경>을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개정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2017년 3월 기준 서울·서울서·충청·영남·호남 지역으로 나뉘어 산하에 17개의 교구(스테이크라고 함)와 6개의 지방부(소교구)로 조직되어 있으며, 약 8만 7천 명의 교인이 있다. 서울·서울서·부산·대전에 4개의 선교부가 있으며 450여명의 국내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동·서·부산·광주·중부 신학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한 중등부와 대학생과 성인을 중심으로한 대학부로 나뉘어 신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간행물로는 월간지<리아호나>가 있으며, 그밖에도 전도사업과 교육을 위한 많은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이 교회의 한국관리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5에 있다.

물론교도들이 보통 상냥하고, 사랑이 있으며, 친절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구원의 수단을 왜곡하는 거짓된 종교에 의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여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소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을 극적으로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에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6,000여명의 수용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 지휘와 모든 재정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들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를 담당하는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 단단히 교육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놈들만 모여 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한다. 그리고 그 미친자들과고는 절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줄 알아라."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뵌경계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센티, 130센티 요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에서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 올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거기 와서 하루 열 여섯시간, 열 여덟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속에서 노동하며 고문 받다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 내려서 뒷잔등에 혹이 되어 버렸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 기계로 찍어도 한 판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뽐뽐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을 멀리서 보았을 때 모두가 꺼먼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찬찬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애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옹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고 또 튀고 딱지가 앉고 그 자리에 쇳물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들짐승의 가죽과 같았습니다.

어느날 저는 그 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제가 공장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공장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 가운데 수백명의 죄수 아닌 죄수를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들 두 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문 옆 한쪽에 비껴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세상으로 보내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옥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 백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죽지 않을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덕치는 대로 아무나 여덟 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짓이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며 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천만분의 일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들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 하면서 달려가더니 펄펄끓는 솥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솥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눈 앞에서 사람이 솥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 곳을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 앞에 솥덩이가 된 사람들이 어른거려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 실오라기 만큼이라도 수령님과 당에 대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그 하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늘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 자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 깨나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한달이 멀다하고 공개처형이 있었는데 어느날 누구를 또 공개처형 시키려는지 6천명이나 되는 수용소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공개처형 때는 반드시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김일성의 특별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하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무릎사이에 목을 끼우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보지 못하도록 목을 무릎사이에 끼우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공개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쇠뿔뿔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가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소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간절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 달라' 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간절한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빌고 또 빌은 그 하늘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를 살려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신자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절. 저. 하.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용어 Briefing

☆탄핵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법률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범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다.

☆기각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반대말 : 가결

☆소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 하는 일

☆시국선언

정치 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 등이 한날 한시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

☆특검(특별검사)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겸손>

겸손한 생애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경은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의학계의 노벨상감이고 대발견이었습니다. 그의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노교수 심프슨 경에게 "선생님의 생애에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천국 보화는 낮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발명도 독창은 없습니다. 전 인류의 공동 발명인 것입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발명하고 경험한 모든 것의 그 위에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그마한 발견하나를 하는 것이 발명입니다. 노예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은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을 조상으로 가지지 않은 왕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도나 살인자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은 성자도 없습니다. 성자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은 살인자나 강도도 없습니다. 거지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은 부자도 없고, 부자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은 거지도 없습니다.

위대한 지혜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독서는 자기 자신을 읽음으로써 참된 지식과 성찰을 얻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항상 고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곧 위대한 지혜요 완전 힘이다. 다른 이들이 공공연히 죄를 짓고 흉악한 과오를 범하는 것을 목격할지라도 그대는 자신이 저들보다 훌륭하다고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창세기 8:21). 그러나 그대는 어느 누구도 그대 자신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도문>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
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 보옵소서

(왕상 8:44-45)

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없이 작고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연일 계속해서 더워지는 날씨와 대기의 오염 속에서도 영.육을 강건함
으로 지켜주시고 주께 나아올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신 주의 자비하
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달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서 우리 국민들은 나
라의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건만 그동안의 가난과 압박과 침략과 설움
속에서도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믿음의 선
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줄 알면서 인간의 완
악함과 교만함은 끝이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
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암담한 현실로 이어지고
아직까지 분열된 아픔 속에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누리고 있
는 자유와 그 속의 아주 작은 부분들은 누군가는 목숨으로 누군가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지켜왔기에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누리며 가질 수 있었
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적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

서도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다스려주시고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라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사명감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도덕과 윤리를 행하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권세를 가진 자는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연약한자는 자괴 하지 말고 노력하여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어 국가가 잘 운영되며 안정과 평안을 되찾아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가장 활력있고 힘 있는 황금기에 나라를 위해 부름 받아 헌신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고 푸르른 이 나라의 군인들은 불철주야 쉬지 않고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항상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장병들이 신앙의 줄을 붙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은 나라와 국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기에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광 청년

◎ 이달의 교회소식

1. 교회미화 - 페인트 도색, 6월 5일 오전10:00
2. 헌신예배 - 리브가여선교회, 6월 4일
3. 찬양예배 - 찬양위원회, 6월 11일
4. 제7차 성지순례 설명회 - 6월 15일
5. 헌신예배 - 한나여선교회, 6월 18일
6. 목회탐방 - 6월 26일~29일
7. 제직세미나 - 선한청지기, 6월 29일

◎ 공지사항

1. 생활실천표어 - 영혼의 열정을 나타내라
2. 촌극대회 - 7월 2일 오후 5:00, 기관별 출전
3. 침례문답 - 7월 9일 오전예배 마친후, 새신자실
신청 : 6월 18일까지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 전역 - 김성광청년, 6월 17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